



**장성 황토밭 월동 무 모종 심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가지런히 일궈진 장성군의 한 황토밭에서 수십 명의 농민들이 줄지어서 월동 무를 모종하고 있다. (헬기 조종=광주소방항공대 박창순 기장-문연석 부기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탄력 전남 광주~완도 고속도로 50억 첫 반영

### 광주·전남 내년 국고예산 10조 넘어설 듯

광주시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하고 전남도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전남 주요 공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 '국비 3조원 시대' 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광주시는 2012년 국비 2조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3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광주시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지난 2010년 1조2444억원, 2011년 1조

4668억원, 2012년 2조1381억원, 2013년 2조518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치과용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무등산 생태탐방 체험관 건립, 국립 야생동물 보전연구원 설립 등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도심 하천 생태 복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조지 설립, 동광주~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에 대해서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

침이다.  
◇전남도 자동차 튜닝사업 등 반영=전남도는 기재부 반영 2014년 국고 예산이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하반기 KTX 사업 예산(2조1600억원)에 비해 내년 예산이 1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줄 것으 로 보이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국고 예산이 7조1659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올해도 최종 확보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복지예산(1조3000억원)이 올해에 비해 10% 가량 많이 배정되고, F1 관련 산업인 자동차 튜닝사업 기반구축 등 10개 현안사업에 250억원 가량이 반영될 가능성 커

체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예산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50억원 반영)이며 ▲자동차 튜닝사업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항공기 비행중합시험 인프라개발 구축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센터 건립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등도 기재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반영 예산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재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불통정치' 대치정국 질책 매서웠다

###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광주·전남 추석민심 호남 무시 불만·어려운 살림살이 호소

추석 연휴기간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살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2일 지역민들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여야 대치 정국에 대한 비판과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4면>  
상당수 지역민들은 현 정부의 '호남 소외'에 대한 불만과 '불통정치'를 질책하며, 이러한 정국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연휴기간 많은 시민을 만났는데, 불통 정국에 대한 분노와 공작하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도 가득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아이들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일 좀 하게 해달라'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며 지역민들이 정치권의 분발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의 통근 화합정치를 기대했지만, 불통정치로 실망했다고 했다"며 "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

민을 보고 국회로 복귀해 일분 및 예산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과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정부여당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다"고 말했다.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참조경제' 운운하며 경기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온데 간데 없어져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또한, 불통과 독선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특히 이번에는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호남 무시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전하며 "박 대통령이 호남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미미했기 때문인지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무시하기'가 노골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北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

### 대화 분위기 조성 될 때까지...금강산관광 회담도 이산가족 당혹·실망...정부 "반인륜적 행위" 비난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7면>  
정부는 북한의 발표에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등 화해 국면이 조성된 남북관계가 경제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당연한 일정에 올라있는 휴먼 긴장, 친척 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남북은 지난 16일 이산가족 상봉 남측 대상자 96명, 북측 대상자 100명

의 최종명단을 교환했고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할 예정이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며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성과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라,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떠들고 있고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돈줄' 등을 언급하며 중상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김의 대표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측이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지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한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도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북한의 태도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0년간 떨어진 혈육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산가족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 현지에 체류하며 행사를 준비하던 우리측 선발대 및 시설점검 인력 75명은 22일 오후 금강산에서 전원 철수했다. /연환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LIRIKOS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가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모두 아름다운 이유를 욕지만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비단속 새로운 발견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살기 어려운 온도 2℃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섞이지 않은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닷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리리코스는 뷰티케어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091)5020000(팩) 고객 상담실 080-023-5454 www.lirkos.co.kr